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오늘 오후 집회는 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3남·5여선교회가 주관합니다. 오늘부터 오후 집회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집회는 기도의밤으로 모입니다. 기도회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9일) 예배시 금년도 십일조 및 월정 헌금을 작성해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며 작성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중고등부실에서 재무부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2011년 선교회장단 교육이 있습니다.

2011년 교우전화번호부에 잘못 기재된 분들은 1층 로비에 있는 정오표에 바르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집회 찬양을 인도할 찬양단원을 모집합니다. (싱어, 피아노, 신디사이저, 베이스 기타, 드럼 등)

몸이 불편한 분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가급적 교회마당에 주차를 삼가십시오.

말씀을 읽으며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 * 식 당 봉 사 : 장혜숙 박성실 원인혜 정경례 최윤선 이건식 최영혜
- * 다음주식당봉사 : 백혜숙 김희우 허정호 정현숙 윤성희 전충길 조순덕
- * 설 거 지 봉 사 : 전해리 김지호 김정우 (다음 주 : 류준모 심호선 김기성)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주님으로부터 또 한 번의 큰 선물을 받습니다. 지난 일은 뒤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그 삶을 이루려는 용기를 더불어 허락해 주십시오. 인생의 문제가 제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보다 크고 힘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청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냉랭해져 가는 세상에 주님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전쟁의 소문 늘어가는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새해에는 좀더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서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철수 유영남 한완식 임정자 김인걸 문영혜 권미숙
김경연 김일량 이은옥 김중수 이순정 김희진 박홍재 박규석 박경선
안종일 정현주 임고운 임승동 백혜숙 정복순 최종원 정재정 이명우
강순배 조항범 오현정 윤석철 장혜숙 임창선 이성운 서수진 김지호
허신열 전해리 박옥식 조문규 진정숙 권채영 장대호 무명

월정헌금:

김현영 정원석 안길상 이형숙 왕수명 이동천 노우종 임 영 정경례
서정순 권미정 박범희 박미영 박준희 이기분 이성범 이소순 이유선
방극숙 이재구 황선희 이정은 장재영 김재영 조순덕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이수정 배재경 이증자 김창경 김지윤 송동준 김진경 정연희
문홍일 이미혜 류건형 이주은 무명

감사헌금:

권명자 김남홍 선우영 한훈식 권채영 한 민 신진식 이건식 신영신
김일량 이은옥 강순배 오송경 박병구 김정애 무명6

녹색꿈 헌금:

정재윤 황의일 이현숙 윤석철 장혜숙

생일감사헌금:

권혁순 박혜경 김주희 김기석 김희우

	장혜숙	박성실		
	노순옥	정경례		
	임정자	최경미		
	문영혜	이명희		
	안정숙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윤		
	최숙화	권미정	심	심
	이순정	김금순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백혜숙		
	유경순	김수진		
	이영란	이증자		
	박혜경	최영혜		

농담

이문재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했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도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느끼며 사십시오. 부질없는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굳건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아멘. 바른 삶보다는 부유한 삶을 소망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3남 · 5여 주관예배 말씀 : 김기석 목사	1월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한완식 장로	박범희 권사

1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중수 임주빈 이순정 김금순 최현옥
	헌금위원	조병무 박홍재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서로 간의 틈 보듬기

라르슈에서 우리는 길을 찾는다. 어디에 길이 있는지 찾으려고 애쓴다. 우리가 모든 해답을 아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야기 해야 한다. 그것은 불의와 고통이라는 거대한 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것은 이른바 ‘정상’ 세계와, 연약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내몰리고 제외되거나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 심지어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죽음을 당하는 이들 사이에 놓인 틈이다. 우리는 바로 이 틈을, 사람들을 초청하는 자리로 삼고 이 초청에 응해달라고 요청한다.

우리는 복음의 비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복음의 비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복음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깨닫게 된다. 그것은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약속이며, 일치와 평화와 용납의 비전이다. 사람들 간의 벽과 집단들 간의 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마음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변화는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예수님은 디베라와 같은 부유한 도시에서는 별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다. 오히려 음행을 하다 잡힌 사람들과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성전에서 거부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셨다. 관계를 잇는 일에 시간을 들이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그런 일이었다. 그분의 비전은 세계 각처에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하나로 연합하는 데 있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분열의 벽을 건디지 못하신다. 예수님의 비전을 통해 우리는 한자리에 만나 대화함으로써 분열이 치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고 말씀하신다. 그는 심한 상처를 입고 길에 쓰러져 있는 유대인의 손을 잡아 주고 치료해 주었다. 자기가 타던 나귀에 그를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 저녁 시간을 그의 곁에서 보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 형제라는 걸 깨달았다. 두 사람은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둘 다 변화되었다. 서로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졌다.

복음서에는 사회에서 번듯한 자리를 차지하고 너무나 바쁘게 사는 사람들과 사회에서 배제되어 일 없이 지척거리는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이 곳곳에 그려져 있다. 혼인 잔치의 비유(마22장, 눅14장)를 보면 딸을 시집보내고 땅을 사는 한시적인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향연을 즐길 시간의 여유가 조금도 없었다. 그래서 임금, 즉 잔칫집 주인은 종들을 시켜

큰 길과 골목으로 가서 소외된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를 지닌 사람, 눈먼 사람을 다 데려오게 했다. 아무나 가리지 말고 데려오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랑의 잔치에 몰려들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과 미련한 자들과 멸시당하는 자들을 택하시어 지혜로운 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한다. 가장 멸시받는 사람,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말이다. 이 가르침에는 수직적인 계급 조직이 맨 밑바닥에서 시작해 하나의 몸으로 변화되는 비전이 살아 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강자보다 약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의미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신비는 그들이 권력보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더 갈망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갈채를 보내거나 승진을 시켜 주는 집단에서 안주하는 삶에 집착하고 매달리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갈망한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외침을 들으신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사랑을 베푸라는 하나님의 외침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처음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 장애인들의 외침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그들은 그렇게 묻고 있었다. 내가 근본적으로 절규하는 외침도 바로 그랬던 탓일까? 그 외침은 나의 내면 깊숙이 감추고 있던 뭔가를 건드렸다. 나는 내가 성공할 수 있음을 알았다. 해군에 남았더라도 출세가도를 달렸을 것이다. 철학 박사 학위도 받았다. 성공의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은 없었다. 내가 중병이라도 걸리면 누가 옆에 남겠는가? 나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걸 알았다. 용납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내 업적 때문이 아니라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받고 돌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면 깊은 곳에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 지난 42년 동안 우리는 많은 죽음을 지켜보았고 죽음을 축하의 시간으로 승화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죽음을 축하의 시간으로 누리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기초다.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고인이 된 지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식으로 죽음을 축하한다. 예를 들어, 최근 숨을 거둔 재닌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우리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재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친자매들도 와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었다. 눈물은 그녀가 우리 곁을 떠나간 데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웃음은 그녀가 했던 수많은 아름다운 일에 대한 추억의 웃음이었다. ... 장 바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중에서